

비뚤어진 교계 풍토, 속히 정화돼야 한다

정부에서 치루는 갖가지 행사 중에 인간 상록수를 포상하거나 숨은 미담의 주인공을 찾아내서 표창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봉사를 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교회가 이다지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의 선행을 격려하고 치하해 주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보면 교회 안의 숨은 봉사가 오히려 교계 안에서 묵살되는 반면, 일반 사회 단체나 정부에서 포상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흐뭇한 선행이 교계 안에서 봉오리를 맺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 교계 안에서는 늘 남을 깎아 내리고 남을 존경해 주는 일에 인색한 탓이 아닐까?

새봄을 맞이하여서 한국의 종교계에서는 갖가지 행사가 치루어지고 있다. 전도 대회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연구 강연, 대중 집회와 연일 계속되어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큰 일을 치루고 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현대의 발전 문제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이렇듯 타 종교나 교회가 한결같이 이 시대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이 나라의 정신 운동의 새로운 기운으로써 앞으로 있을 국가 발전과 아울러 참으로 기대를 걸고 치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과 시대적인 책임을 외면하듯이 고질적인 교회 정치로써 재주를 부리면서 연합 사업을 지연시키

는 일이 아직도 우리 눈 앞에서 공공연히 연출되고 있다. 배스콤은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교육 시설이요, 더우기 교회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독교 방송국은 복음 선포의 가장 위력있는 신예 무기인 것이다. 이 기관의 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가 아무리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민방 기업체 중에서도 초기에는 공정한 뉴스 보도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모아 왔던 기독교 방송이 그간 운영 책임자의 무능 때문에 타성적인 방송 사업으로 전락되어서 청취자는 날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여러 모로 저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첨단적인 교회 기관이 발전을 꾀하려는 시도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좌절되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자료를 놓고 분석해 본다면 그것은 영리를 위한 기업체가 아니고 교파들이 파송한 재단 이사들이 비교적 직접적인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 때문인지 비교적 여유를 두고 교파간의 의견 조종과 막후 교섭을 해나가면서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데서 일반 방송 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버린 것이다. 신임 국장 선출에 있어서도 한 교파가 그 교파내 사정 때문에 국장 인선 후보를 내지 못하면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실도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독교 방송국은 그간 선교사를 국장으로 해서 그 발전의 터전을 충분히 마련했다. 또 그 점에서 그의 공로에 대해서 전 교회가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공로에 못지 않게 또한 더 엄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여지를 많이 남겨 놓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가 홀연히 사표를 내고 그 후임을 선출하는

데 것처럼 지연과 진통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력 결핍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력의 결핍이 아니라 지도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늘려버리는 부정적인 지도 세력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합적으로 기업 기술을 발휘해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는 매스·컴 기관을 쓸데 없는 교파간의 흥정의 제물로 삼아버리고 그 결과로서 방송 사업은 날로 후퇴하는 딱한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연합 사업이 다 그렇듯이 방송국도 결코 어떠한 교파의 독점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전교계적인 사명과 책임을 공동으로 느끼고 연합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교회 연합 사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방송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사진, 실무진들이 참으로 방송국의 기능을 제대로 발전시키는데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단순히 기독교 방송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지만 다만 방송국의 문제가 국장 인선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교회 연합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 움직이는 교계 안에서 첨단적인 방송 사업에 발전과 책임의 망각 지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